투자전략 | 2024.04.18

Conviction Call

외국인 KOSPI200 선물 투매공세는 이제 9부 능선을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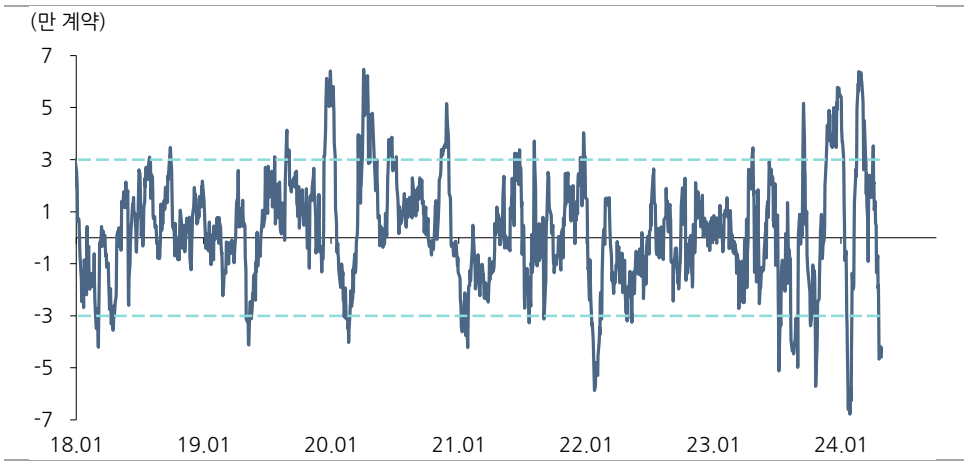
Strategist 김용구 | 주식전략
02-3779-3825
yg.kim@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4월 선반영 호재 둔감, 미반영 악재 민감으로의 시장 성격 변화와 함께 KOSPI 2,600pt선을 밑도는 증시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외국인 현물 수급엔 동선행, 기관 수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투자(증권) 프로그램 현물 수급에 동행하는 외국인 KOSPI200 지수선물(또는 파생상품) 투매공세가 최근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갈길 바쁜 시장을 발목 잡는 직접적 교란요인에 해당함. 주목할 점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KOSPI200 지수선물 20일 누적 순매수 경로가 +3만 ~ -3만 계약 수 밴드를 순환한다는 사실임. 관련 맥락에서 보면 +3만 계약 부근은 과매수의 극단(Buying-Climax)에 해당하니 리스크 관리에 주력함이 옳고, -3만 계약 어귀는 과매도의 정점(Selling-Climax) 통과를 암시하니 매도보단 보유가, 관망보단 매수가 이기는 전략/전술로 변화함

4/17일 종가 기준 현재 외국인 KOSPI200 지수선물 20일 누적 순매수는 -1.8만 계약을 기록. 흥미로운 대목은 18일부터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0 계약 대응이 이어지더라도, 20일 누적 순매수 경로는 18일 -3.0만, 19일 -4.7만, 23일 -4.6만, 24일 -4.2만 계약으로 시장 과매도 정점통과 임계선 이하 구간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임. 외국인 KOSPI200 지수선물 투매공세가 이제 9부 능선은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인 것. KOSPI 2,600pt선 이하 구간에선 두려움이 아닌 용기가 미덕에 해당함. 최근 악재에 대한 각별한 사주경계를 유지하더라도, 지금은 널부러진 주도주 Bottom-fishing 대응이 시장을 이기는 투자전략의 근간이자 급선무에 해당함

그림 1. 외국인 KOSPI200 지수선물 20일 누적 순매수 계약 수 추이(18일 이후 ±0 계약 순매수 가정 시)



자료: KRX,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용구)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